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사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근대로 들어오면서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에너지를 띠게 된다. 다스리는 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질서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야 할 것이다.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근대의 권력 당국, 곧 국가와 종교는 그들의 권위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국민들의 복종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종교로부터 이념을 빌리고 종교는 국가로부터 힘을 얻는다. 한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고마저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같은 종교를 믿어야 하며, 종교의 신임을 받은 국왕을 잘 따라야 한다. 근대 국가는 ‘균질한 영혼’들이 국가 기구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했고, 이것이 마녀사냥이 결과적으로 행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은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는 더욱 문명화되는 것일까? 만일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비참한 탄압과 야만적인 전쟁 같은 것은 아예 사라졌을 것이다. 마녀사냥과 같은 현상을 보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집단 광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마녀사냥은 그 모습 그대로는 근대 초 유럽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유사한 현상은 언제나 있었다.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순한 세력! 그것은 히틀러에게는 유대인이었고, 파시스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었다. 때로 권력은 일부러 그런 위험 세력을 조작해 내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런 조작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내면에 ‘마녀사냥’식의 충동이 잠재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출처 : 이상형 외, 『고등학교 독서』

[나] 영국에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깨달은 칼레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항복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칼레의 사자를 접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태도는 전혀 누그러질 줄 몰랐다.

이때 왕의 측근 월테 머네이 경이 왕 앞에 나섰다. 측근까지 나서서 자비를 구하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에드워드 3세는 마침내 마음을 고쳐먹은 듯 입을 열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여섯 명만은 예외이다. 그것이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며,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겠지.”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시민들은 결국 항복하게 되었다는 굴욕감과 그럼에도 대다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 여섯 명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괴감 등으로 피 같은 눈물을 흘렸다. 패자의 운명은 이렇듯 야속하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절망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외스타슈라는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우리는 싸움에 저서 항복했을 뿐이지 우리의 얼과 녀마저 내어 준 것은 아니오. 제비뽑기 같은 것을 해서 희생자를 뽑는다면 그 구차함에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오.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자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외스타슈는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렇듯 제일 먼저 자신

이 희생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다투어 나섰다. 그렇게 여섯 명이 채워졌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송별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의 진지를 향해 나아갔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감에 싸여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

[다] 여론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제멋대로 과장해서 보도했다. 『르 프티 주르날』지는 정치적 편향을 보이지 않는 신문이었고 대체로 그런 이유 때문에 300만의 독자를 가진 신문이었지만 이렇게 선언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드레퓌스는 국방부가 신임하는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 동료들을 자신의 목인 하에 놓인 밧에 걸리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

『레코 드 파리』 같은 보수적인 신문은 아무런 인용 없이 드레퓌스가 병력 동원의 규모, 시간,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적에게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병력 동원 시간표를 다시 작성하는 데만도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최근에 일어났던 해결되지 않은 일련의 반역 행위의 책임까지 드레퓌스에게 돌려졌다. 드레퓌스는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도 어떤 신문은 그가 독일 귀족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것이 목격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그가 묵은 것으로 ‘알려진’ 호텔의 이름과 객실의 번호까지 밝혔다.

주요 일간지인 『르 탕』지와 『르 마탱』지는 드레퓌스가 어떤 연애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드레퓌스는 니스에 사는 귀족 출신의 이탈리아 미녀를 애인으로 갖고 있었다. 그를 유혹해서 반역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여자였다고 이 두 신문은 공언했다.

“드레퓌스는 프랑스 국민을 파멸시키고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려고 획책해 온 국제적 유대인 조직의 스파이”라고 가톨릭계 신문인 『라 크루아』지는 썼다. 『라 리브르 파롤』, 『라 코카르드』, 『라 파트리』 등의 신문은 모두 입을 모아 드레퓌스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참모본부는 드레퓌스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인지 명백히 내다볼 수 있었다. 메르시에는 사직하게 될 것이며 아마 내각 자체도 무너지게 될 것이었다.

출처 : 니콜라스 할라스, 『나는 고발한다』

[문제 2]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라]를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능력과 업적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과 업적만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본다. 더욱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은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 외적 조건에 따라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하자는 견해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성취동기와 창의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출처 : 박병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출제진 재구성)

[나] 미국의 흑인 실업률이 두 달 연속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지난 6월 고용 통계에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조기 정후가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 현상은 한결같지 않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자 수는 5~6월 26만 7,000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30만 명 증가한 실업자 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6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흑인 실업률은 6%로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백인 실업률은 3.1%로 낮아져 흑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흑인 노동자들은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국면에서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조사 분석에서 지적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최근 감소한 것은 노동시장 전체에 하나의 위험 초기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중략)……

흑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참여율은 그동안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한 때 15년 만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었다. 그러나 고용자 수는 3개월 기준으로 3% 감소했다. 사상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중시되는 흑인과 백인의 실업 격차도 확대로 돌아섰다.

출처 : 『초이스 경제』, 2023. 7. 11.

최근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후 미국 흑인이 종사하고 있는 4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맥킨지 파트너 겸 보고서 공동 저자인 제이슨 라이트는 “현대의 경제에 존재하는 현대화, 자동화, 글로벌 전환에 미국 흑인들은 백인들과 비교하여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력에서 22%의 일자리가 AI 및 자동화로 인하여 ‘파괴’되어 없어지거나 저임금으로 대체될 것이지만, 미국 흑인 노동력의 사례는 10%포인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산은 아무런 대책이나 중재가 없다면 2030년까지 450만 개의 흑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중략)……

AI 및 자동화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인종적 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백인 가구와 흑인 가구 사이의 재산 차이는 1992년 이후 54,000달러 증가했다. 백인 미국인들은 흑인 미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학생 부채를 덜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

로 진행되어 왔던 고용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 『시타임스』, 2019. 10. 9.(출제진 재구성)

[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리어 상대방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자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 차별을 받았던 것인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는지, 노력과 성취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된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손에게 차별을 보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다. 또 소수자 우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보상 받는 자는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고 현재 보상하는 사람들도 과거 차별을 가했던 당사자가 아닐 수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을 손상할 수 있고, 역차별로 인한 다수 집단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 변순용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출제진 재구성)

[라] 19일(현지 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근 대학 견학을 추진하는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지역의 7개 초등학교가 지난 16일 견학 참가 학생을 흑인으로만 제한해 논란을 일으켰다.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백인 학생의 학부모는 이중 잣대에 따른 인종차별이라며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20일 2차 대학 방문 때에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대학 견학을 기획한 이는 사우스벤드 지역 학교 흑인 학부모·학생 자치 연합의 책임자로 선임된 흑인 데이비드 모스 박사다. 모스 박사는 흑인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낮은 점을 들어 이들에게 동기를 주기 위한 행보라며 차별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많은 어린 흑인 학생이 흑인 대학생을 본보기로 삼고 대학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한 일”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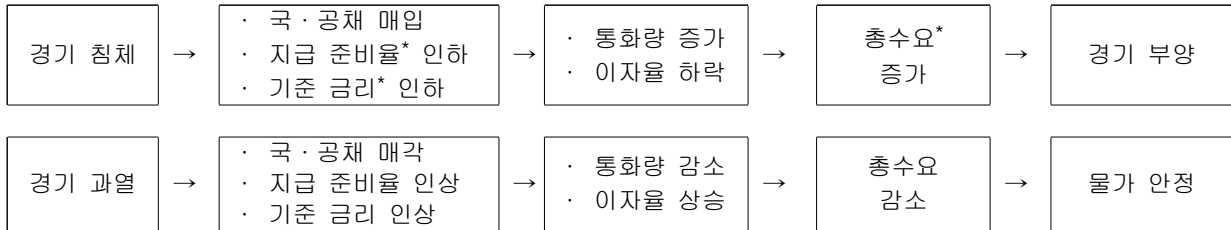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콜러』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만을 위한 의도적인 백인 역차별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데일리 콜러』를 보면,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베네시아 중학교의 한 흑인 여성 교사는 수업 시간에 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미국의 인권 운동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인종 문제와 관련한 설문지를 나눠 줬다. 같은 달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오크 파크 리버 포리스트 고교에서도 백인 학생을 배제한 채 오로지 흑인 학생을 위한 ‘흑인의 삶은 소중하다’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5. 4. 20.

[문제 3]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 * 지급 준비율 : 시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증가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자금이 감소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 * 기준 금리 :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이다.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 금리는 시중의 예금 및 대출 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 * 총수요 :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합한 것이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출제진 재구성)

<한국은행 기준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변경 일자		기준 금리
2019년	07월 18일	1.50
2019년	10월 16일	1.25
2020년	03월 17일	0.75
2020년	05월 28일	0.50
2021년	08월 26일	0.75
2021년	11월 25일	1.00
2022년	01월 14일	1.25
2022년	04월 14일	1.50
2022년	05월 26일	1.75
2022년	07월 13일	2.25
2022년	08월 25일	2.50
2022년	10월 12일	3.00
2022년	11월 24일	3.25

출처 : 한국은행, 202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0.75%→1%)에 이은 연속 금리 인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다만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1년 10개월 만에 기준 금리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 수준(연 1.25%)으로 복귀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1.25%→0.75%) 대폭 인하했고, 이어 2020년 5월 추가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 건 치솟는 물가를 억누르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가 오르며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를 웃돈다.

출처 : 『중앙일보』, 2022. 1. 14.(출제진 재구성)

[나] <코스피 지수* 추이>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코스피 지수	2,198	2,873	2,978	2,236

* 코스피 지수 : 한국 거래소 상장 기업들의 주식 가격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고 주식 수를 가중 평균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23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추이>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수도권	112	136	168	130
지방	95	107	120	107
전국	103	120	142	118

*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 : 매월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아파트 거래 가격 자료를 토대로 기준 시점인 2017년 11월을 지수 100으로 하고 해당 연월의 가격 변화를 상대가격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3

[다] <신용 거래 용자 잔고* 추이> (단위 : 백만 원)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신용 거래 용자 잔고	9,213,276	19,221,357	23,089,636	16,518,648

* 신용 거래 용자 잔고 :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금융투자협회, 2023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추이> (단위 : 조 원)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843	911	982	1,013

*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금 잔액 :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빌린 금액 중 갚지 않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출처 : 한국은행, 2023

<가계 대출 현황>

	2019. 12.	2020. 12.	2021. 12.	2022. 12.
차주*수 (십만 명)	194	196	199	198
대출 잔액 (조 원)	1,622	1,753	1,869	1,861
차주당 대출 잔액 (십만 원)	837	893	940	939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70% 이상	26	27	28	30
비율 (%)	13.5	13.5	14.2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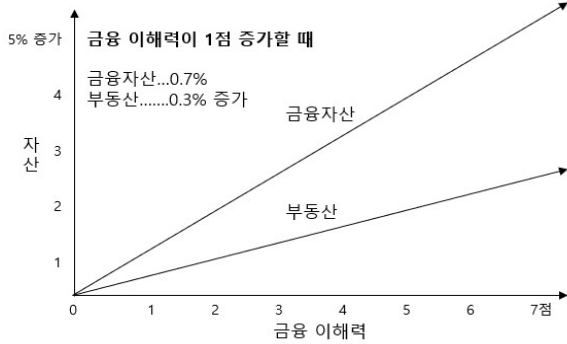
* 차주 :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쓸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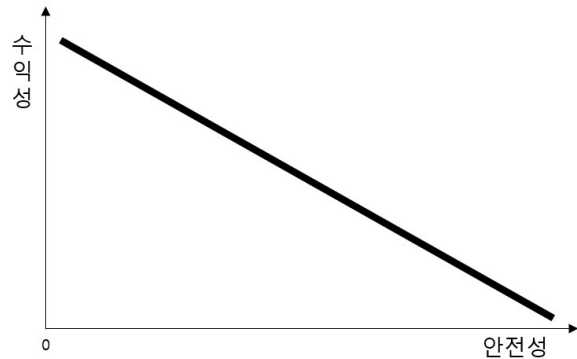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2023

[라]

<금융 이해력*과 자산과의 관계>



<수익성과 안전성의 관계>



* 금융 이해력 : 금융 정보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 : 『조선일보』, 2020. 1. 7.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국가별 대담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호주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뉴질랜드	가족	직업	친구	돈	사회
스웨덴	가족	직업	친구	돈/건강	
프랑스	가족	직업	건강	돈	친구
그리스	가족	직업	건강	친구	취미
독일	가족	직업/건강		돈/긍정	
캐나다	가족	직업	돈	친구	사회
싱가포르	가족	직업	사회	돈	친구
이탈리아	가족/직업		돈	건강	친구
네덜란드	가족	돈	건강	친구	직업
벨기에	가족	돈	직업	건강	친구
일본	가족	돈	직업/건강		취미
영국	가족	친구	취미	직업	건강
미국	가족	친구	돈	직업	믿음
스페인	건강	돈	직업	가족	사회
한국	돈	건강	가족	사회/자유	
대만	사회	돈	가족	자유	취미

출처 : 『뉴스로드』, 2021. 11. 25.

<2018~2020년 OECD 국가 행복 지수 순위>

(단위 : 점, 10점 만점 기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핀란드	7.84	19	벨기에	6.83
2	덴마크	7.62	20	프랑스	6.69
3	스위스	7.57	21	스페인	6.49
4	아이슬란드	7.55	22	이탈리아	6.48
5	네덜란드	7.46	23	슬로베니아	6.46
6	노르웨이	7.39	24	슬로바키아	6.33
7	스웨덴	7.36	25	멕시코	6.32
8	룩셈부르크	7.32	26	리투아니아	6.26
9	뉴질랜드	7.28	27	에스토니아	6.19
10	오스트리아	7.27	28	칠레	6.17
11	호주	7.18	29	폴란드	6.17
12	이스라엘	7.16	30	라트비아	6.03
13	독일	7.16	31	콜롬비아	6.01
14	캐나다	7.10	32	헝가리	5.99
15	아일랜드	7.09	33	일본	5.94
16	영국	7.06	34	포르투갈	5.93
17	체코	6.97	35	한국	5.85
18	미국	6.95	36	그리스	5.72

출처 : 『중앙일보』, 2021. 5. 19.

프랑스 혁명 당시 정권을 잡은 로베스피에르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폭등하여 민심이 나빠지자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가격 통제에 나섰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민심도 얻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우윳값이 비싸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다는 어머니들의 원성에 우유 가격 인하를 명령했다. 강제적인 우유 가격 인하 직후에 우유를 싼 가격에 마실 수 있게 된 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생산 비용도 보전하기 어렵게 된 목축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였고,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우유 가격은 오히려 더 폭등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내놓은 방안은 사료비 통제였다. 사료업자들 역시 도산하고 말았고, 결국 우유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통제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그 목적과 다르게 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마]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죠. 그래서 그 돈으로 더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주식은 난생처음이라 남들 다 버는 장이었다고 하는 데 그리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32세 직장인 A 씨)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A 씨처럼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2030 세대가 급증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빚투한 청년들은 관촬을까?

출처 : 『뉴시스』, 2021. 6. 26.

이지환(25, 가명) 씨는 평소 형들에게 “남자는 무조건 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형들의 부추김에 외제차를 타 보고 싶은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비싼 차에 대한 욕망은 군대에서 극에 달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때마다 외제차를 몰고 거침없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멋있는 차를 타고 여자 친구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주변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고 이런 상상들이 군대 생활을 버티게 해줬다.

2019년 말 23살이 됐을 때 이 씨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당시 카드를 썼던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내려간 상황이었다. 제1 금융권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제2 금융권 캐피탈에서 자동차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이 씨는 차량 금액 4,300만 원 전액을 대출 받고 중고 외제차의 차주가 됐다. 이 씨의 차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고 그는 자신감을 얻었다. 여자 친구는 항상 차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의 드라이브 요청도 많았다. 카페나 식당에 갈 때는 일부러 주차장이 큰 곳만 골라 갔다.

1년이 넘자 격월로 고장이 발생했다. 딜러가 20만 km까지 무상 보증 혜택 대상 차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서비스 센터에 가면 특수 부위 수리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주로 우측 로커암 커버와 스로틀 바디 문제였다. 1년 새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나왔다. 유류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다. 숨만 쉬어도 차량 유지비 200만 원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씨는 지금 심정을 두 마디로 표현했다. “빠듯하다.” 그리고 “후회한다.”

출처 : 『국민일보』, 2021. 12. 25.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중한 지역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 안정 연구팀 ○○○ 차장은 이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하며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집값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SBS Biz』, 2023. 7. 11.